

外注는 歷史의 反逆行爲다

政府綜合 廳舍設計 및 建立에 關하여



錄音으로 傳함

金 重 業

지금 全 建築界 乃至 技術界에서는 政府綜合廳舍設計 用役에 關해서 總務處 當局이 취하고 있는 조처로 매 소란이 일고 있는데 不幸이도 本人은 지금 急한 事情에 依해서 外國에 떠나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이제 곧 있을 공청회에 參席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自請해서 所謂 錄音을 남겨놓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려는 것은 그러한 內容에 對해서 本人의 所見을 發表하고 일단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해 볼적에 今年이 바로 우리 檀紀4301年 그러니까 韓民族이 歷史를 記錄하기 始作해서 4,300年 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韓國人으로서는 가장 큰 大事의 하나가 이번에 政府의 廳舍를 짓는다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데까지나 全 國民이 기대를 걸었던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또 建築界에 있어서서는 이 일을爲해서 많은 勞苦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이러한 不祥事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內容에 對해서는 제가 구구히 說明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일 自體는 어디까지나 우리 國內의 資本을 動員시켜서 韓國에서 자랑할수 있는 廳舍를 짓는다 해가지고 再昨年에 현상모집을 했었고 그 현상모집에 있어서 佳作로 當選된 羅相振氏에게 設計를 의뢰했었고 또 의뢰했을뿐만 아니라 그 設計가 進行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난데 온데없이 美國의 그것도 이것이 말하자면 저급에 속하는 PAE라는 소위 이름 3字 까지도 分明치 않은 그러한 設計會社에 다가 이 일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韓國歷史上에 커다란 오점을 적는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主管하는 行政의 立場으로 볼 적에 이것은 國家에 반역하는 行爲라고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勿論 여러가지의 內容이 있을줄 압니다.

여러가지 隘路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諮問委員會도 構成되어 諮問 委員會가 몇번 말하자면 會合을 가졌고 그 諮問委員會에서도 大多數의 諮問委員이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느냐 하는 것을 指摘했음에도 不拘하고 全격적으로 契約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事實은 이것은 國民에게 한個의 信義에 어긋나는 行동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이것은 全韓國의 建築界에 도전한 事件이라고 보지 않을 道理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政府廳舍의 規模라든가 거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構造라든가 또는 一時 論議된 地盤의 問題 이런것을 상세히 檢討해 볼때 充分히 國內의 技術陳으로서 될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가 여기 特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PAE의 어떠한 人間이라든가 어떠한 建築家보다도 여기에 設計者인 나상진씨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本人 自身도 그PAE에 어떠한 「아키텍트」보다도 저희 技術이 월등히 낫다는 자부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견딜 그런 한個의 事件인 同時에 이것을 그냥 묵과 할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 또 그러므로서 여기에 對策委員會가 解體되고 方今 鬭爭委員會로 전환될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新聞社 乃至 여러가지 매스콤을 통해서 聲明이 發表될 것이고 또한 2月21日에는 공청회를 열기로 決定된 事實 까지도 나는 알고서 지금 무거운 결심으로 外國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UIA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條項의 하나가 어떠한 현상모집을 했을때 그 當選된 사람에게 본 設計를 꼭 委囑해야 된다는 條項이 붙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나라의 어떠한 建築士法에 依해서도 그나라의 國民이어야 된다는 條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韓國의 建築士法에 依할것 같으면 거기에도 우리 國民이어야만 建築設計를 勿論 國內의 設計입니다마는 담당할 수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數年前에 뉴욕博覽會에 韓國館設計를 맡았을 當時에 있어서도 그것이 뉴욕에 세워진다는 문제로서 뉴욕에 있는 「윌터, 도잉 티구」라는 建築家하고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美國의 PAE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美國은 州마다 建築法이 달라서 소위 거기에「레지스트」된 建築家만이 그 州의 일을 담당하기로 되어있는 그러한 나라의 P. A. E. 가 감히 韓國의 建築의 設計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自體도 이것은 國際道義上 容납되지 않고 또 그러한 事情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가장 重要한 處部の 하나인 總務處 自體가 그러한 P. A. E. 와 손을 잡고서 거기에다가 소위 설계 발주를 했다는 事實은 이것은 흑막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국민 全體가 어떠한 흑막속에 가리워지는 處事가 아니냐고 不滿을 表示하지 않을 道理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同時에 이러한 일 自體는 이것은 一個 建築界의 不祥事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韓國의 技術界의 不祥事이고 韓國의 技術者로서 또한 建築家로서 充分히 이루어 놓을 수 있는 作業을 하필 外國에 가장 이름도 없는 소위 좋지 않은 그러한 用役會社에다가 청부를 준다는 事實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羅相振氏가 이 設計를 擔當했을 當時에 設計用 役費가 1千 6百萬원인데도 不拘하고 이번에 PAE에다가 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價格으로서 美國에 用役을 맡겼다는 事實 이것은 國庫를 낭비하고 또한 그와 同時에 民族에 反逆하는 그러한 行爲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指摘하지 않을 道理가 없는 것 같습니다.

勿論 이 自體는 앞으로 監查院問題로도 번지리라고 보고 또한 이 自體는 國際法 상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UIA 제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있고 또한 이 建築家들의 關爭委員會뿐만 아니라 全 技術者들의 關爭委員會로 擴大되리라고 보고 또한 맥스컴 乃至 國民은 容納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政府의 要人 가운데는 가장 良識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良識이 없는 사람의 行動이기 때문에 良識있는 賢明한 政府의 要인들이 이 일을 바로 잡기 爲해서 애써 주리라고 또한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몇일 前에 朴正熙大統領께서 高速道路 起

工式에서 밝힌 말씀 가운데에도 이 엄청난 高速道路의 作業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나라의 技術만 가지고서 한다는 方針을 表明한 것을 제가 알고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總務處에서 諮問委員會를 열었을 當時에 틀림없이 이것은 韓國 사람의 손에 依해서 모든것을 끝낸다고 公言한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處事가 일어난 것인 만큼 이것은 한 個의 사기행위요 또 한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韓國 國民全體를 모독하는 行爲라 아니 할 道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建築家 全體는 총권기해야 되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韓國의 技術을 守護하기 爲해서 모든 技術人들이 뭉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와 同時에 이 關爭委員會 自體 이것은 強力히 執行이 되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뼈가 부러지는 限이 있더라도 또한 우리가 하다 못해서 이 나라에서 못 사는 限이 있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우리 韓國 사람의 손에 依해서 우리나라의 大課業인 政府廳舍를 이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韓國技術 乃至 建築家들의 지혜를 뭉으면 이것보다도 몇 배 더 큰 作業도 이루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力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重要한 일이니만큼 어떠한 個人的 명예라든가 個人的 利害關係를 떠나서 이것은 우수한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合作까지도 해야 될 覺悟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리라고 보고 또한 그러한 點에서 우리가 분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勿論 設計를 擔當했던 羅相振氏 個人으로서의 不名譽일 뿐만이 아니라 이 自體는 韓國 全體의 建築家 乃至 技術陳의 不名譽요 또 따라서 이것은 韓國廳舍에 큰 吳點을 찍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執行된다면 이것은 韓國의 歷史에 反逆行爲를 하는 人間들을 여기에 낳는 그러한 問題까지 지적하지 않을 道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點에서 총권기해서 다행히 關爭에 좋은 成果를 견을 때까지 밀고나가 주시기를 絶실히 付託하면서 제가 歸國하는 即時 이 運動에 加擔해서 한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 드릴 것을 여기에 맹서하겠습니다.

1968. 2. 16,